



# 속속들이 보고 배우는 우리 문화유산의 모든 것

###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

사찰의 법당에서, 박물관 전시실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불상을 대한다. 앉았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쪽 다리에 올려놓은 모습이기도 하다. 이외에 또 불상은 어떤 자세를 하고 있을까?

용맹좌, 영거주춤 웅크린 채 굽어앉은 자세로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세운 자세를 말한다. 강릉 신복사지 석불좌상(보물 제 84호)이 바로 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사문화·사찰·민속·복식 등 15개 분야 총정리  
사진·일러스트 자료 4천점... 영문판도 발행**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는 자세 뿐 아니라 불상의 구조와 명칭, 종류, 조각법, 배치, 공배, 수인, 입은 옷의 모양새까지 '불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설명하고 있는 친절한 안내서다.

세계문화유산·궁궐·전통가옥·사찰·성·선사문화·묘제·건축·공예·민속·복식·과학·악기·서

화·문화유산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그야말로 우리 문화유산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4,000여 점에 달하는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보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존 문화유산을 안내한 책들이 불교미술, 공예 등 특정주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친 반면, 이 책은 선조들이 사용했던 머리장식, 농기구, 작은 식기류까지도 담아내 선조들의 자잘한 일상까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처음 자료집 형태로 만들었던 것을 재편집하고, 더 많은 자료들을 추가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발간하면서, 영문판(Korea Cultural Heritage 1, 2)도 출간했다. 한국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대성한 영문 안내서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나온 영문판은 자료적 차원에서 큰 수확이다. (사공테크 펴, 각권 205천원) 이은자 기자 [eeun@buddhapia.com](mailto:eeun@buddhapia.com)



### 고봉화상 선요

《고봉화상 선요》는 중국 남송 말기에 선종을 드날린 고봉 원묘 선사(高峰 原妙 禪師, 1238-1295)의 법문집이다.

고봉 선사는 중국 조사선 임제종의 선맥을 이은 임제 선사의 18대 적손이자, 육조 혜능의 23대손이다. 《선요(禪要)》에 나오는 법문은 주로 고봉 선사 탄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禪)에 대한 입장이 체계화되고, 깨

달음이 완전히 성취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조사선의 핵심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저서로 평가되어왔다. 이 《선요》를 조사선의 전통을 이은 우리나라 강원 사립과에서도 일찍부터 필수 과목의 하나로 정해 배우고 있다.

《선요》에서 고봉 선사는 '본래성불(本來成佛)'이라는 입장을 근본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화에 이르는 공부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 화두 참구에 필요한 대산심, 대의정, 대용행의 삼요소, 일대사, 화두 참구 과정에서 만나는 각종 병, 항상사 등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전제강제(중앙대) 교수가 역주한 이 책은

### 선(禪)의 핵심 꿩들은 고봉선사의 가르침

것은 어떤 것도 이미 선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또 '순간(瞬間)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해 '참구(參究) 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드러냈다.

이 책의 주된 내용도, 화두를 참구해서 일념이 되고 온산 철벽을 무과하여 확립(確立)되

그동안 번역됐던 《선요》와 달리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고,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는 등 깨달음의 길을 가려는 현대인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일지사 펴, 7천원) 이은자 기자

### 본격적 禪學 입문·개론서

#### 선학의 이해



선(禪)이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불교학 분야 전반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동안 선의 경우 그것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 선학은 새로운 불교학의 한 분야로 다양한 응용학문들을 배출해내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 현각스님이 펴낸 《선학의 이해》는 선학에 대한 본격적인 입문서이자 개론서다. 이 책은 선의 역사나, 선사들의 이

아기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선 관련서와 달리 선의 역사와 수행, 선전(禪典), 선학의 방향 제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문서로서의 격을 갖추었다. 현각 스님은 "선이 학문의 분야로 등장한 이후 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류적인 해석의 작업과 더불어 선의 의의와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선학 강의를 담당하고부터 불문이 준비해 둔 강의안과 단편적인 이론서 등을 참조하면서 학문으로서 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선학의 이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선의 사상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선의 근원으로부터 붓다의 수행, 인도선, 선법의 중국전래, 중국선종, 한국선법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제2부는 선경(禪經)과 선어록, 실제 수행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선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제3부에서는 마음에 대한 선적 고찰과 간화선의 성립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역시아문체, 값 1만5천원)

### 어느 바람



시력(1958년~2002) 44년을 결산하는 고은 시인의 고회 기념 시선집 《어느 바람》이 나왔다.

시선집은 김승화·안도현·고형렬·이시영 네 명의 시인이 고은의 시 세계를 시기별로 대별하여 일차 수록작을 뽑고, 평론가 백낙청씨가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백두산' '만인보' '마나면 길' 등의 서사시·장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읽는 이의 부담을 덜고, 수록작에

### 고은 詩曆 44년 결산... 150편 선정

대한 시인 자신의 개고(改稿)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난 시기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선집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다.

첫 시집 《피안감성》(1960)부터 《두고 온 시》(2002)까지의 단행본 시집에서 150편을 뽑았고, 시집 말미에 가장 최근의 활동까지를 담은 상세한 연보를 실어 시인의 복잡다단한 생애를 간추렸다. (창작과 비평사, 8천5백원)



### ZEN GOLF



골프와 선(Zen)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고도의 정신 집중을 요하는 골프에 박세리, 김지현 등 한국의 불자 남자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이 대답에 '아니다'라는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ZEN GOLF: Mastering the Mental Game》는 골프라는 '정신 게임(Mental Game)'을 마스터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 명상 통한 마음다루기

골프경기서 좋은 결과

《ZEN GOLF》의 전제는 강한 집중과 이완을 하나로 묶는 명상이 골프에도 적용된다는 점. 이 책은 현대심리학과 전통적인 불교의 통찰과 교리를 응용함으로써 평정심 유지하기, 나쁜 샷을 유발하는 방해들을 인식하기, 잘못된 습관과 정신적 실수 제거하기 등 골퍼의 마음을 적어 아닌 동반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미국 Doubleday 출판. 김재경 기자 [jjim@buddhapia.com](mailto:jjim@buddhapia.com)

### 문수기도 공덕

오대산 상원사 주지 정념 스님이 펴낸 《문수기도 공덕》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보살의 가피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37가지 영험담을 통해 이야기 한다. 책의 일부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영험록 가운데 문수보살 기도를 통해 얻은 공덕과 영험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했으며, 뒷부분에는 《문수보살발원경》을 수록했다. (민족사 펴, 6천5백원)

### 옛 시 읽기의 즐거움

옛 사람들이 지은 시를 통해 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책이 바로 《옛 시 읽기의 즐거움》이다. 저자인 김중기 씨(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다산 정약용, 매월당 김시습, 만해 한용운 스님 등의 시 50편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높은 정신 세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했다. (아침이슬 펴, 9천원)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아문체

순위	도서명	저·번자	출판사
1	화(Anger)	딕 낫 한	명진출판사
2	미오지간	성 은 불 공	공
3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문선원
4	편지	명진스님외	고요아침
5	바보 인생에	우렌디파	불 공
6	딕 낫 한의 평화로움	딕 낫 한	열림원
7	신묘장구대다라니경해	임 근 동	솔 바 람
8	달라리(마마와 도둑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9	산중에서 길을 묻고있다	서 화 동	은행나무
10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딕 낫 한	김 영 사

도서 안내: (02)737-0695

###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 부선동이

글 원성스님 원동희 그림 원성스님 / 225쪽 / 28,500원

잊혀진 동심을 화폭에 담은 원성스님, 그 맑은 감동을 글로 빚어낸 또 하나의 책!

꽃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

## 차한장의 풍경

혼탁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차향이 넘치는 맑은 햇차와 같은 진한 감동의 글과 그림!

글 담원 김창배와 다인들 그림 담원 김창배 / 305쪽 / 값 13,000원

솔과학 서울 중구 명인동 276-1 계간B/D 5층 전화 02)725-8635 / 팩스 02)725-4656

## 참된 삶의 목적은 당신의 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

# 의식의 두 얼굴

저자 리농(李農)은 누구인가?  
오랜 수행생활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체득하게 되어 20여 년 전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현재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의 세계를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 불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요법을 펼치고 있다.

'의식의 두 얼굴'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자연생리의식'과 후천적인 '뇌 의식'이란 두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분명한 실체인 자연생리의식의 존재를 입증 및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의 명확한 구별을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존재의 진정한 목적인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간화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의 간화선 수행법은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생리의식의 타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효·경허·성철·서용·진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 5인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이 땅에 바른 불법(佛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이들 승려 5인이 정각(正覺)에 이른 것이 아닌 오십마(五十魔)의 마군(魔軍)이라던 큰일 아닌가!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는가?  
삶의 참목적(眞目的)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수행(修行)수행생활에 정진하고 있거나 뜻을 두고 있는 이들, 암·간경화·신경병 등 모든 성인병으로 고통에 빠진 환자 및 가족들, 한국의 불교 현실 및 바른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이들, 진정한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부인하고 있는 이들.....

리농 리농(李農) 펴  
변형 크라운판 / 400면  
값 18,000원

도서출판 부천시 소사구 소서본 3동 400-3 동우빌딩 405호  
Tel : 032-347-8118-9  
Fax : 032-341-8117

• 저자 상담 : Tel : 011-559-8118, E-mail : reanon@mindbody.co.kr  
• 도서 주문 : Homepage : http://www.mindbody.co.kr  
우체국 계좌번호 104950-01-000455, 예금주 : 의단원